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6월 7일 (제79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나부터 성장시켜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단언컨대 자신에게 인색한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한다.

오래 전, 어느 집사가 병들어 내게 기도를 받으러 왔다. 나는 기도 후에 당분간 모든 것을 잊고 장성 기도원에 가서 좀 쉬라고 했더니 이 집사 하는 말, “아휴, 목사님. 제가 없으면 애들은 어찌고, 애 아빠는 또 어떡해요?” 라고 했다. 그리고 내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가더니 얼마 후 세상을 등졌다. 천하에 어리석은 자다. 내가 없으면 가정도, 가족도, 기업도 없다는 것을 그 집사는 모른 것이다. 모든 기점은 나다.

나는 이번 주 중에 경남 노회의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먼저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라. 너를 성장시켜라. 자신의 영·혼·육에 좋은 것을 먹여줘야 남에게도 영·혼·육에 동일하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내가 지식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게 지력이, 영력이, 건강이 있어야 줄 수 있지, 마른 샘에 어찌 물을 길어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기술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는데 퍼낼 것이 뭐 있겠는가. 그래서 내 땅이 먼저 기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현재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 가난한 나라에 원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니 남의 석가래 썩은 것 탓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질주해라.”

내가 모여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성립되는 것이다.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부를 쌓고, 내가 건강하면 선진국이요, 부국이요, 강건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는 30년을 맞아 나는 내 영·혼·육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 예수중심교단을 위한 것이니까. 당부한다. 나부터 교육시키고, 나부터 성장시키고, 나부터 건강하자.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움 & 보고픔

시냇물에 내 맘 실어 바람에 띄워

임에게 소식전해 띄워보나 무소식뿐이라네.

분홍종이 비행기 접어 임에게 소식전해

공중에 띄워봐도 무소식뿐이라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왜! 이리 그리운지 내 맘 가늘 길 없구나.

소식 끊긴 다리 언제나 연결 되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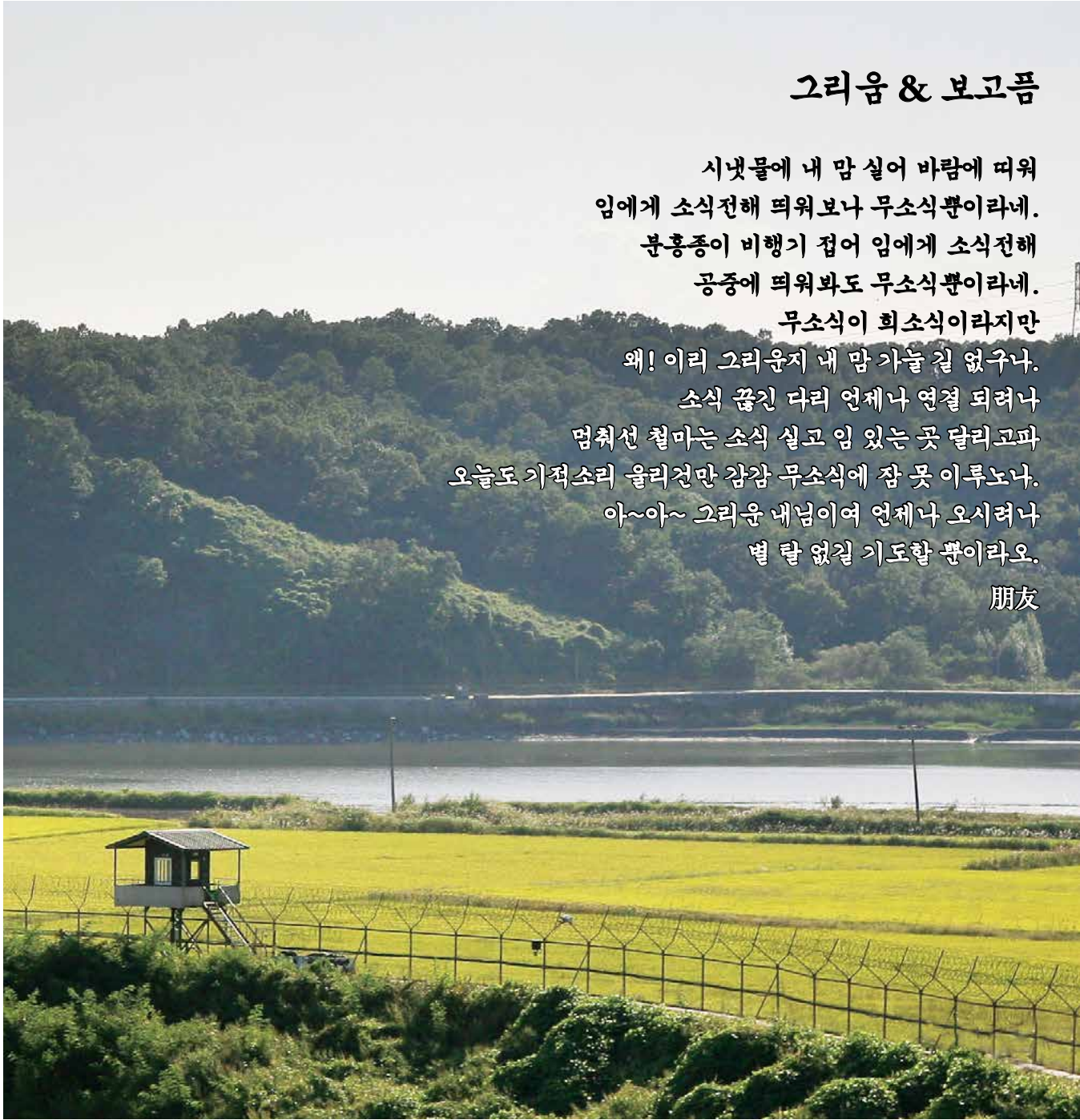
멈춰선 철마는 소식 실고 임 있는 곳 달리고파

오늘도 기적소리 울리건만 감감 무소식에 잠 못 이루노나.

아~아~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별 탈 없길 기도할 뿐이라오.

朋友



안보 없는 경제성장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요즘도 우리는 저 건너의 전쟁 소식을 전해 듣고, 보고 있다. 전쟁이 인간을 어떻게 미치게 하고 살아남기 위해 어떤 끔찍한 짓들을 저지르는지, 전쟁에 여자를 비롯한 약자들이 어떻게 유린당하는지를. 전쟁의 참상과 참화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비극 중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할 능력이 안 된다며,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정신 나간 소리다. 또한 젊은이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가히 놀랄 수준이다. 전국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6·25의 발발년도(1950년)를 아는 사람은 겨우 30%, 특히나 20대의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 6·25 전쟁의 발발년도를

잘 몰랐다. 거기다가 14.6%의 경우에는 6·25를 일으킨 게 북한이 아니거나 혹은 모르겠다는 응답을 할 정도라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안보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안보 없는 경제성장도 없다. 전쟁은 모든 희망의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6·25가 65주년 되는 올해, 우리는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갖는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그리고 이 나라가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열어

왔다. 나는 이 사명을 우리 교단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린다.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6월 25일 저녁 8시,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참석해야 한다. 이건 의무 이상이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겨 싸움을 당해도 절대 좌초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롬 8:31).

6월 25일 저녁 8시,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만납시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당신의 한 통화가 세계를 복음화 한다!

ARS 060-700-0688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3:20)

너는 누구와 손을 잡았는가?

기업이든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동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핸드폰을 만든 것도 사람이요, 우주정복을 실현하는 것도 사람이요, 만능인 컴퓨터를 만든 것도,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역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歷史)란 곧 시대에 걸친 사람들의 행적이나 업적의 기록 아닙니까? 그럼요, 사람이 힘이요, 사람이 능력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짐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골라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사람을 골라 쓰셨습니다. 그 분이 제자를 택할 때 아무나 감정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제자를 고르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막 3:13~15). 하나님도 마음이 맞는 다윗을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그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행 13:22~23). 이는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능력과 실력이 있는 자, 성공한 경험을 가진 자, 부지런한 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등 이런 자를 골라 써야 국가가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자

차별은 옳지 않으나 구별은 해야 발전한다

고로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고르는 법이니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는 마태복음 13장 47~48절의 말씀도 쓸 만한 사람을 골라 쓰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골라 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엘리야가 엘리사를, 느브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골라 써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들 아닐까요?

얼마 전 어느 재벌이 부도직전에 이르렀을 때, 제가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말을 바꿔 타십시오.” 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둔한 참모와 함께 있으니 기업이 뒷걸음질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 말을 듣고 사람을 바꾸어 기업이 회생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

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여러분, 도둑놈과 함께 다니면 머지않아 도적질을 배우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곧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성공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능력 있는 자와 있으면 능력을 닦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의욕적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도 성공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며, 모든 일에 의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사람이 ‘하면 된다’는 신조를 심어 주고, 의욕적인 사람이 이

당신을 도전하게 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서 성공담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머슴을 살아도 정승 집에 살아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철이 연한 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나보다 나은 친구를 만나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보다 실력 있는 친구, 나보다 능력 있는 친구, 나보다 행복한 친구, 나보다 수완이 뛰어난 친구, 나보다 지식이 있는 친구, 나보다 성공한 친구, 나보다 믿음 있는 친구를 만나야 그 친구로 인해 내가 향상되고, 내가 한 단계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항상 모세와 있다 보니 그에게 모세의 능력과 통치력을 배운 것입니다. 엘리사도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엘리야를 좇아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익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대단한 네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았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의 얼굴은 고사하고 그림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때 그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를 낫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비록 중풍병자였지만 자기보다 나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를 가진 덕분에 그는 병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중풍에 걸렸습니까? 국가가, 교회가

중풍병입니까? 당신에게도 능력 있고 믿음 있고 기발한

생각을 가진 네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모든 것이 완벽한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식의 원천이신 친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은 저의 친구이자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15:15).

저는 농사꾼의 자녀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친구 삼아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분과 함께 있으니 그분의 성품이 몸에 배고, 그분의 능력이 제게 임했으며, 그분의 사랑이 제게 전염되어 사랑이 넘치게 되었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중심교단을 세우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 저뿐만 입니까? 솔로몬은 예수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부귀와 장수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친구 삼은 후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를 알던 사람들이 다 놀란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닭은꼬은 시간과 정비레한다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행4:13~14). 사도 바울도 예수로 인하여 포악하고 안하무인이던 성격도 없어지고,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닭은꼬은 시간과 정비레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닦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친구 삼아 그 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사,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닦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잘못 만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오른 눈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못 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갈 길은 하나, 멸망의 포구입니다.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오른 눈이 실족했으면 그것을 뽑아내야 천국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찢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革新)’입니다. 혁신은 가족까지 벗겨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전적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이생과 내세가 달라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му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디지털 디톡스 운동!

얼마 전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5,700만 인구 중에 무려 4,100만 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72%의 국민이 스마트폰 사용자라고 한다면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네나 갓난쟁이를 제외하면 전 국민이 모두 스마트폰 사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우리 삶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설교를 듣고, 음악이나 영화 감상, TV 시청은 물론이고 은행 업무나 주식 투자, 그리고 각종 게임이나 쇼핑까지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내비게이션, 계산기, 만보기, 사전 등과 성경, 찬송가까지 들어 있으니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손 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워서 습득하는 지식보다도 스마트폰에서 잘 찾아서 활용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국가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글로벌 시대가 된지 오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되어 세계가 더욱 더 가깝게만 느껴집니다. SNS를 통하여 생각지도 못했던 오랜 지기들이 찾아와 옛 추억을 더듬으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정말 꿈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편리함도 많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나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등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강박증이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만 소통을 하다 보니 인간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다가도 모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여다보는 바람에 대화가 단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운동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 취지는 스마트폰에 빠지는 시간을 줄이고 오프라인에서 삶의 여유를 찾자는 운동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 오프라인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타임 킬링(Time killing)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절제력 있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미확인된 괴담을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됩시다. 전도의 대상을 정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하다 보면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로 난 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 되었듯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 세계로 주님의 피 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이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갑질사회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갑질’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고 일상까지 침투해있다.

얼마 전, 어떤 재벌 자녀가 ‘갑질’한 사건인 땅콩회항은 그 재벌 자녀가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이렇게 배우지 못한 재벌들이 하는 갑질은 2세, 3세에 이르기까지 대물림되는 듯하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러한 ‘갑질’은 재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 집에서는 부부사이에서, 그리고 애인사이에서도 ‘갑질’은 일어난다. 그 이유는 사람이 열등감이라는 죄를 안고 살기 때문이다. ‘갑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남보다 훌륭하고 우월한 자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한편, ‘갑질’을 당한 ‘을’은 을 나름대로 병에게 또 ‘을질’을 한다. 백화점 모녀, 음식점 진상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억압 받은 자가 자기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당한대로 갚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복된 ‘갑질’과 ‘을

질’이 모여 겹겹이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살기 팍팍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타인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 ‘갑질’의 원인이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갑질’하고, 못 가진 자가 더 못 가진 자에게 ‘갑질’하는 굴종적인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는 우리들끼리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켜 사랑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이다.

사람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사탄의 꾀계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안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이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부모를 찾듯,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롬8:3). 가장 높은 자로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갑질이 아닌 배려와 사랑의 사회가 될 것이다.

나는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

김성일
cre8tor@naver.com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삶::

세상을 바꾸는 힘, 혁신!

우리가 간편하게 먹는 샌드위치가 건물 7층에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손사래를 치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층에 위치한 샌드위치 가게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인산인해로 물려드는 7층에 위치한 샌드위치 가게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재플슈츠(Jaf-flechutes)’라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재플은 ‘샌드위치’, 슈츠는 ‘낙하산’을 뜻합니다. 이를하여 ‘낙하산 샌드위치’!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 골목 ‘X’표시가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주인은 7층 높이에서 샌드위치를 낙하산으로 날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샌드위치를 받는다’, 생각만 해도 짜릿한 경험입니다.

이 가게가 특이한 점은 또 있습니다. 간판도, 의자도, 테이블도, 주문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결제를 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시간을 예약한 후, ‘X’표시에 서있으면 본인이 시킨 샌드위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골목 어딘가에 편하게 앉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이 골목전체가 샌드위치 가게의 매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색다른 아이디어 때문에 샌드위치가 떨어지는 이 골목에는 늘 사람들로 가득하고 하늘에서 샌드위치가 떨어질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3월 이초석 목사님께서 ‘개혁과 혁신은 동일하다’고 설교하시며, 혁신(革新)의 ‘혁’자는 가족 ‘혁’자로 가족을 벗기는 대변혁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동식물도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도 영·혼·육의 묵은 때(고착된 사고와 안일한 생각, 잘못된 습관)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층이라는 단점을, 7층이라는 장점으로 바꾼 ‘재플슈츠’의 ‘낙하산 샌드위치’처럼 ‘혁신’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고정관념이 아닌 혁신입니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얼마 전, 신문에 ‘발가락 외엔 쓸 수 없는 한국판 닉 부이치치, 신병들에게 희망 전하는 육군 홍보대사 됐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바로 1급 지체 장애인인 27살 표형민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팔과 손을 전혀 쓸 수 없고 신체 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쓸 수 있는 것은 입과 발가락뿐인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는 생후 1주일 만에 대구의 한 수녀원에 버려진 뒤 고아원과 재활원을 전전하며 좌절에 빠진 삶을 살고 있었지만, 8살 때 우연히 오른발가락에 연필을, 왼발에 지우개를 끼우고 만화를 그리면서 희망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5시간씩 반복해서 그렸는데 사람들이 보고 좋아했다. 그러면서 발가락이라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를 육군에서는 갓 입대한 수백 명의 장병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담을 풀어놓고 그들과 상담도 해주는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식사도 용변도 제대로 못하고, 휠체어 없이는 어딜 다닐 수도 없지만, 그는 어느새 좌절에 빠져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좌절했던 제 자신이 사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발가락 쓸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요, 성장 촉진제임을 다시금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나의 눈을 되돌려 주신 주님

15년 전, 그때까지 나는 평생에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며 치아가 흔들렸다. 병원을 찾았더니 당뇨병이라고 하였다. 약간 잘 챙겨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 잘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12년을 살았다. 당뇨병 진단을 받긴 했지만, 정말 건강한 사람처럼 12년을 살았다. 그렇게 정상인처럼 당뇨병을 잊고 살던 몇 년 전이었다. 어느 날 부터인가 눈앞에서 작은 먼지가 떠다니기 시작하더니 그 먼지는 하루살이만큼 커져갔고, 어느 날 아침엔 큰 바위 조각이 눈앞에 둥 떠 있었다. 그래도 괜찮겠거니 하고 동네 안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망막전막’이라는 당뇨 합병증이었다. 병원에서는 서둘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이 될 것이니 종합병원을 가보라고 하였다. 그 즈음에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 겹쳐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실명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상태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그 순간부터 애통의 기도를 시작하였고, 나도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처럼 목사님의 안수로 눈이 날을 것이라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시력이 점차 악화되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업을 받겠다고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앞이 안보여서 수업을 못하겠다는 내색을 하지 못했다. 매일 아침 등산 스틱을 손에 들고 더듬거리며 한강 산책을 하면서도 가족에게 눈이 점점 보이

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시력의 악화를 조용히 감당하면서 혼자만의 탈출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너의 주님이 어디 있나?’고 짚짚거리는 비웃음의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딸을 비롯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실명한 채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요양기관에서 산다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했다.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설교말씀이 귓전을 울렸지만, 실명 상태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옥인데 달리 더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었다. 죽음을 작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찾아 나선 곳은 제주도 송악산 부근의 절벽이었다. 햇살이 유난히 반짝거리고 따스했던 날, 바다에 들어가면 죽음의 고통이 덜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송악산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갔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울음을 참았고, ‘주님 저에게 다시 눈을 되돌려 주실 수는 없나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절벽 앞에 서 있는데 문득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배를 타고 떠난 먼 여행길에 나그네가 밀감이 먹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배의 주방장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아 밀감을 나그네에게 가져다주었다’는 말씀이었다. 주방장의 손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이 불현듯이 떠올랐다. 나에게 찾아온 “유레카”의 순간이었다. 그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눈을 되돌려 달라

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심하게 모른척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나도 배의 주방장 같은 의사 선생님을 찾지만 한다면 먹고 싶던 밀감을 받은 나그네처럼 사라져가는 눈의 시력도 되찾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같이 이스마엘을 위해 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물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처럼, 수술준비를 위한 일체의 검사를 받은 종합병원을 뒤로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정직하게 선생님께 고백을 했고 진심으로 도움을 청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대 위에서 울고 있는 나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다. ‘주님, 제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셔서 자매님의 눈을 건강하게 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의 눈은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생 지금까지처럼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죽음의 목전에서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목사님의 설교말씀덕분이었고,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떠올랐던 것은 주님의 인도함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늘 아버지처럼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목사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나를 살리는 힘이 되어주셨다. 지금의 건강한 눈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린다.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죽어서도 목사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자유

oh free@hanmail.net

남기는 삶!

사람은 일생동안 세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제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인데,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어 책장에 꽂혀버렸고, 제2권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으로, 오늘 하루 내 모든 몸짓과 행동,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으며, 제3권은 아직 쓰지 못한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1권이나 3권은 부록에 불과하지만, 현재라는 이름의 책인 2권에 따라 제3권 미래라는 이름의 집필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확실한 힘은 오늘 뿐이므로 오늘하루에 충실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시효 지난 수표요, 미래는 어음이며, 오늘날이 현찰처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게 주신 하루하루가 끝나는 날, 내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무엇을 남겼는가’로 결정됩니다. 가난해도, 연약해도, 질병으로 인해 아파도, 사업 실패로 인해 큰 손실이 왔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다면요. 다윗은 일생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상황과 연약함 속에서 찬양 시 ‘시편’을 남겼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최고의 부를 누린 솔로몬은 참회록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에 지금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찬양시입니까? 참회록입니까?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씨앗을 믿어준 바람

::성경에서 배운다::

여기 한 청년이 있다. 가난한 연극배우인 부모 밑에서 자라 지방대학조차 3수를 했으며, 입사시험 30번 낙방 끝에 영어강사가 되었다. 엄청난 자격증이 있거나 수려한 외모도 아니니 그야말로 신뢰가 가는 구석은 하나도 없다. 그런 그가 자신과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의한다. 생활이 어려워니 10명의 직원들은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3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한다. 만약 누가 이 청년과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십중팔구 빨리 그를 떠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청년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이다. 알리바바그룹은 중국 전자상거래에 86%를 점령한 초대형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242조에 달하며, 마윈은 중국 부자서열 3위에 오를 만큼 슈퍼리치다.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야말로 신뢰와 열정만으로 함께 뛰어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를 믿어준 동역자의 가치와 그 소중함에 감탄할 때가 있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 속에 놓였을 때이다. 그때 그의 옆에는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무기를 든 소년’이 소개되는데, 하루는 요나단이 이 소년에게 단 둘이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고 제안한다. 일반적인 인물이라면 요나단을 말리거나 몰래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소년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고 말하며 함께 적진을 향해 올라가고 결국 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 이처럼 좋은 동역자를 두었던 요나단은 또한 다윗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자신이 물려받을 수도 있는 차기 왕권도 꾀념치 않고 자신의 군복, 무기를 넘겨주는 것은 물론이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다윗을 격려하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섬김을 받은 다윗은 훗날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왕자와 같은 대우와 애정을 베풀기로 사

랑의 대물림을 하게 된다. 제아무리 예쁜 꽃도 보잘 것 없는 씨앗에서 시작한다. 가녀린 싹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 잎이 무성해 질 때까지 묵묵히 믿고 도와주는 햇볕과 바람, 비가 있기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고 널리 주변을 향기롭게 하는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변에 나를 믿어주는 동역자가 있는가? 반대로 지금은 초라해도 나중에는 창대해지리라 내가 지지해줌으로 절망에서 일어나는 동역자가 있는가? ‘동역자가 없는 자는 넘어졌을 때 화가 있으리라’는 교훈에 귀 기울이자(전4:10). 우리가 의로운 완전체가 아닌 아직 죄인이었을 그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아름다웠음을 본받자(롬5:8).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히10:24~25)는 말씀처럼, 동역이 주는 어려움과 상처를 두려워하기보다 서로를 통해 얻어지는 거룩한 에너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하인명 renming@daum.net

